

A2001 채권형(연금)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채권형(연금)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 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채권형(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4703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05.25
운용기간	2020.01.01 ~ 2020.03.31	존속기간	최행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자본이득과 이자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 (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변액연금채권형	자산 총액 (A)	3,843	3,878	0.90
	부채 총액 (B)	103	6	-94.10
	순자산총액 (C=A-B)	3,740	3,872	3.52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394	2,462	2.87
	기준가격 (E=C/Dx1000)	1,562.51	1,572.40	0.63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에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2020년 1분기 채권 시장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금리가 하락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정책과 더불어 한국은행이 3월 임시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하 하였습니다. 정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및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추경 편성, 채권시장 안정펀드, 중시 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4월부터 3개월간 무제한 RP 공급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분기중 외국의 국채선물 매도는 시장 금리 하락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경우 금리 인하 효과와 추경 편성에 따른 장기발 발행 부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 또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펀드는 2020년 1분기동안 0.86%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2020년 2분기 채권 시장은 코로나 19의 영향력으로 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높은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중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시장 금리는

하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변동성은 지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정부 정책 등으로 단기 금리는 하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물의 경우 수급 부담으로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의 경우 단기적으로 추가 확대 가능성 있으나,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의 시장 안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면 스프레드 확대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듀레이션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크레딧의 경우 시장 금리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우량 등급 채권 중 저가매수가 가능한 자산에 대해 비중을 일부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채권형(연금)	0.63	0.23	0.87	1.63
(비교지수 대비 성과)	(-0.23)	(-0.57)	(-0.76)	(-1.07)
비교지수(벤치마크)	0.86	0.80	1.63	2.70

※ 비교지수(벤치마크) : 국공채 3-5년 5%, 국고채 5-10년 25%, 특수채 2-3년 5%, 특수채 3-5년 30%, 은행채 AA-이상 1-2년 5%, 기타금융채 AA-이상 1-2년 5%, 기타금융채 AA-이상 2-3년 5%, 회사채 AA-이상 2-3년 5%, CALL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채권형(연금)	1.63	4.12	3.55	4.78
(비교지수 대비 성과)	(-1.07)	(-2.52)	(-3.97)	(-6.91)
비교지수(벤치마크)	2.70	6.64	7.52	11.69

※ 비교지수(벤치마크) : 국공채 3-5년 5%, 국고채 5-10년 25%, 특수채 2-3년 5%, 특수채 3-5년 30%, 은행채 AA-이상 1-2년 5%, 기타금융채 AA-이상 1-2년 5%, 기타금융채 AA-이상 2-3년 5%, 회사채 AA-이상 2-3년 5%, CALL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0	-6	0	0	0	0	0	0	0	1	-11	-15
당기	0	33	0	0	0	0	0	0	0	1	-1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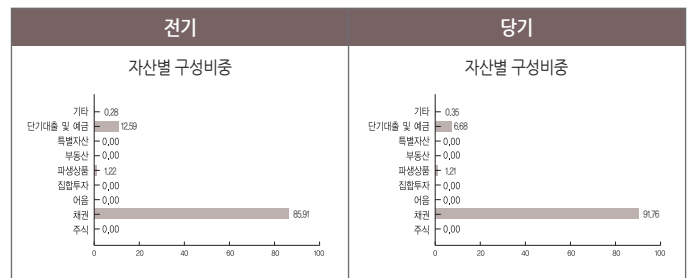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00)	0	3,558	0	0	47	0	0	0	0	259	14	3,878
	(0.00)	(91.76)	(0.00)	(0.00)	(1.21)	(0.00)	(0.00)	(0.00)	(0.00)	(6.68)	(0.35)	(100.00)
합계	0	3,558	0	0	47	0	0	0	0	259	14	3,878

※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채권 국고02250-2309(18-6)	37.42	6	채권 국고01500-2503(20-1)	5.21
2	채권 한국철도시설채권332	15.68	7	채권 토지주택채권(토지수익연계채권)42	3.39
3	채권 국고01875-2906(19-4)	11.18	8	채권 산금19신이0200-0110-2	2.60
4	채권 BNK캐피탈173-4	7.80	9	채권 국고01250-2212(19-7)	2.60
5	단기상품 CMA (신한금융투자)	6.01	10	채권 국고01375-2409(19-5)	2.59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채권

(단위 :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2250-2309(18-6)	1,400	1,451	대한민국	KRW	2018-09-10	2023-09-10		N/A	37.42
한국철도시설채권332	600	608	대한민국	KRW	2019-10-24	2024-10-24		AAA	15.68
국고01875-2906(19-4)	420	433	대한민국	KRW	2019-06-10	2029-06-10		N/A	11.18
BNK캐피탈173-4	300	302	대한민국	KRW	2019-04-18	2022-04-18		AA-	7.80
국고01500-2503(20-1)	200	202	대한민국	KRW	2020-03-10	2025-03-10		N/A	5.21
토지주택채권(토지수익연계채권)42	114	131	대한민국	KRW	2010-08-27	2020-08-27		AAA	3.39
산금19신이0200-0110-2	100	101	대한민국	KRW	2019-01-10	2021-01-10		AAA	2.60
국고01250-2212(19-7)	100	101	대한민국	KRW	2019-12-10	2022-12-10		N/A	2.60
국고01375-2409(19-5)	100	100	대한민국	KRW	2019-09-10	2024-09-10		N/A	2.59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CMA	신한금융투자	2020-03-31	233	0.65	2020-04-01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1	77	2,276,163	-	-	2119000125
김태현	과장	37	77	2,276,163	-	-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7	2,276,163	-	-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2018.05.29 ~ 2019.12.06	차인식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1	0.02	1	0.02	
판매회사	4	0.10	4	0.1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5	0.12	4	0.12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식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901	0	0.4901
당기	0.4908	0	0.4908

※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채권형(연금)'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